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보건·의학 도서

여인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교수

서론

선교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의료와 교육이다. 이는 한국의 초기 개신교 선교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1884년 9월 20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내한한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을 개원하였다. 이후 알렌이 소속된 미국 북장로교뿐 아니라 북미와 호주, 영국 등의 각 교단에서 의료선교사를 파견해 의료선교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 학교를 열어 근대적 교육을 시작했고, 이때 시작된 학교들이 오늘날까지 건재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선교에서 의료와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 문서를 통한 출판사업이다. 물론 이 사업은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성서의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또 성서와 함께 전도의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각종 책자의 발간도 출판사업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사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단기간에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문서를 통한 선교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씨가 짧은 시간 안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금속활자를 사용해 교회 개혁의 메시지를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가 출판되어 널리 보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활동은 문서 출판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문서를 통한 출판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출판사업은 의료나 교육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늦었지만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30주년을 맞아 이러한 문서 출판사업이 한국의 초기 기독교 발전에 미친 영향과 함께 한글 서적 출판이 우리 사회의 문자 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필자가 맡은 보건·의료 분야의 책자 출판은 그것 자체가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의료와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이들 사업을 매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출판된 의료서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의학교나 간호학교, 혹은 일반 초·중등학교의 교재로 출판된 서적이다. 다른 한 부류는 대중을 상대로 보건과 위생에 관한 계몽적 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출판된 서적이다. 전

자는 교재라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후자 역시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목적의 출판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출판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출판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확장시키면 출판사업을 통해 의료와 교육 사업을 바라보는 작업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한편 출판이나 교육은 수용자를 염두에 둔 활동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 형식이 수용자에게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 지점에서 개신교는 초기에 한글전용이란 형식을 채택해 출판물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형식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며 무게를 두는 수용자의 층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언어적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 형식의 변화는 조선에 수교사회 발간 보건·의료 관련 서적에 잘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개신교가 수용된 이후 이루어진 의학 관련 서적의 출판을 중심으로 의료와 교육, 그리고 출판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양상을 출판 서적이 취하는 언어적 형식을 통해 살펴보고, 그 속에서 조선예수교서회의 보건·의료 도서의 출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 1910년 이전의 보건·의료 관련 서적의 출판

1) 의학교재의 출판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1910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출판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건·의료 관련 서적의 출판 양상도 1910년을 전후로 하여 변화가 발생한다. 가장 큰 차이는 1910년 이전은 의학교재 출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이다. 의학교재는 의학교육을 전제로 하므로 의학교재 출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의학 교육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885년 4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개원한 제중원은 이듬해 의학당을 열어 의학교육을 시작했다. 제중원이 단순히 의료기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제중원을 통한 의학교육은 알렌이 조선 정부에 병원 설립을 제안하던 당시부터 계획된 내용이었다.¹ 알렌은 이 병원이 “장차 조선청년들에게서 양의학과 공중위생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² 그리고 그가 밝힌 바와 같이 1886년 3월 29일 경쟁을 통해 선발한 16명의 학생으로 의학교를 개교하고 의학교육을 시작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에 어느 정도 숙달된 이후 수학, 물리, 화학 등 의학의 기초가 되는 자연과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교육을 모두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부학, 생리학, 의학을 가르쳤다.³ 교수진으로는 제중원의 의사로 일하던 알렌과 헤론(John W. Heron, 1856-1890)만이 아니라 복음선교사로 내한했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도 교육에 참여했다.⁴ 이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의학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어 교재를 사용하여 영어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한국어에 능통했던 언더우드는 한국어로 영어와 물리, 화학 등을 가르쳤다.⁵

안타깝게도 이처럼 의욕적으로 시작된 첫 의학교육은 소정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제중원 설립을 주도하고 진료와 교육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알렌이 1887년 외교관으로 전직하여 제중원을 떠난 것이 컸다. 알렌이 떠나며 제중원의 진료를 전부 떠맡게 된 헤론은 교육을 위한 여유를 내기 어려웠다. 언더우드를 비롯해 기퍼드(Daniel L. Gifford, 1861-1900), 할버트(Homer B. Hulbert, 1863-

1949) 등이 교육에 참여했으나 복음선교사였던 이들이 의학을 가르칠 수는 없었고, 주로 영어를 가르쳤다. 나중에 제중원 의학당이 영어를 가르치는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기퍼드의 언급⁶은 이러한 사정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적 요인 이외에도 언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과학과 의학이라는 아주 낯선 학문을 어느 정도 배웠다고는 하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인 영어로 학습해야 하는 어려움도 컸을 것이다. 언더우드와 같이 일부 선교사가 한국어로 교수할 수 있었다고 해도 핵심적인 의학교육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교재도 영어로 쓰인 것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운영의 불안정함에 더해 언어적 문제로 인한 학습상의 어려움은 최초의 의학교육이 결실을 맺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알렌이 이직한 후 혼자 제중원을 맡아 고군분투하던 헤론은 1890년 여름 이질에 걸려 낯선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었다.⁷ 헤론의 뒤를 이어 제중원 운영을 맡은 빈튼(Charles C. Vinton, 1856-1936)은 제중원을 통한 선교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⁸ 따라서 외부에 따로 진료소를 차려 진료활동을 하며 제중원의 운영을 소홀히 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선교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⁹ 결국 그를 대신해서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이 1893년에 내한하여 제중원의 책임을 맡았다.

빈튼의 뒤를 이어 제중원의 책임을 맡은 에비슨은 먼저 조선 정부와 선교부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던 제중원의 관할권 문제를 해결했다.¹⁰ 에비슨은 제중원의 운영권을 선교부 산하로 가져옴으로써 제중원을 온전한 의료선교 기관으로 만들었다. 빈튼 시기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제중원을 온전한 선교기관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한 에비슨은 병

원 운영 이외에 의학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의학교육을 재개한 에비슨이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인 것은 국문 의학교재의 편찬이었다.

그는 진료 틈틈이 자신을 도우던 조수-학생의 도움을 받아 의학의 기초인 해부학 교재의 번역에 착수했다. 그가 처음 선택한 책은 당시 영미권에서 해부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던 *Gray's Anatomy*(그레이 해부학)이었다. 많은 해부학 용어의 번역어를 만드느라 고심을 거듭하며 번역을 진행했지만,¹¹ 번역 원고의 유실과 같은 불행한 상황을 맞으며 이 책의 번역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대신 이미 번역 용어가 존재하는 일본의 해부학 교재를 번역하고, 그 첫 권이 1906년 제중원에서 출판되었다. 제중원 의학 교과서로는 『해부학』 출간 이전인 1905년에 『약물학』이 처음으로 발간되었으며, 이후 생리학, 산과학, 외과학 등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교과서들도 발간되었다. 에비슨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전 분야의 국문 의학 교과서 발간을 목표로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¹²

제중원의 의학 교과서는 1905년에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까지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학교 교육에서 일본어 교재 사용이 강제되면서 새로운 국문 의학 교과서의 출판뿐 아니라 이미 간행된 국문 교재도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현재 남아 있는 제중원 의학 교과서는 15종 정도이다.¹³

[표 1] 제중원 간행 의학 교과서 목록

제목	저자	역자/교열	쪽수	연도	발행처
약물학상권. 무기질	Bruce	어비신번역	165	1905	제중원
신편화학교과서. 무기질	吉田彦六郎	김필순번역/어비신교열	233	1906	제중원

해부학 권일	今田東	김필순번역/어비신교열	143	1906	제중원
해부학 권이	今田東	김필순번역/어비신교열	102	1906	제중원
해부학권삼	今田東	김필순번역/어비신교열	142	1906	제중원
신편생리교과서	坪井次郎	홍석후번역/어비신교열	109	1906	제중원
진단학권일	獨逸博士愛氏	홍석후번역/어비신교열	190	1906	제중원
진단학권이	獨逸博士愛氏	홍석후번역/어비신교열	190	1907	제중원
피부병 진단치료법	-	홍중은번역/어비신교열	141	1907	제중원
병리통론	-	-	237	1907	제중원
서의편방	홍석후		82	1907	제중원
무찌산과학	武氏	홍중은역	77	1908	세브란스 병원
신편화학교과서. 유기질	-	김필순번역/어비신교열	61	1909	제중원
해부학권일	今田東	김필순번역/어비신교열	134	1909	
외과총론	-	김필순역술	158	1910	세브란스 병원

언어적 측면에서 제중원 의학 교과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한글 전용이었다. 이는 당시 선교사들이 주도한 기독교 계통의 출판물이 한글로 되어 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시기 의학 분야의 출판에 한정하여 볼 때, 이러한 특징은 두드러진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의학 관련 서적은 기독교 기관에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적지 않게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서적은 예외 없이 국한문 혼용체로 출판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해부학 서적에서 나타난다. 제중원에서 발간된 『해부학』은 이마다(今田東)의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던 해부학 교재로 1887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래 1927년에 27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책이었다.¹⁴ 아마도 그런 이유로 제중원뿐 아니라 조선 정부가 설립한 의학교에서도 이 책을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책의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중원 번역본과 의학교 번역본은 문체가 완전히 다르다. 제중원 번역본은 한글 전용이었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 용어나 영어 혹은 라틴어 용어를 병기하였다. 또 용어의 번역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반면에 의학교 번역본은 토씨만 한글을 쓰고 나머지 용어들은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킨 전형적인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동일한 부분이 각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아래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제중원 번역본)

해부학은 계통해부학(系統解剖學)과 국소해부학(局所解剖學)과 태생학(胎生學)과 및 비교해부학(比較解剖學)을 통칭함이니 대개 해부라 하는 말의 근본말은 Anatomia 이 이는 유기체(有機體)를 각 조직으로 버혀난 하는 뜻이라. 대개 유기체의 근본은 한 개의 세포로부터 자라며 변화하여 드디어 각 기계와 각체를 이루느니라.¹⁵

(의학교 번역본)

解剖學은 系統解剖學, 局所解剖學, 胎生解剖學及比較解剖學을 總稱함이니 蓋解剖란 語는 有機體를 各個로 截解하는 義라. 大抵 有機體의 原基는 一個 細胞로부터 生育變化를 由하여 各器各體를 組織하나니라.¹⁶

단순히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이라는 차이 말고도, ‘절해’(截解)를 ‘버히다’는 우리말로 옮긴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중원 번역본은 가능한 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⁷

제중원 의학 교과서 이외에 기독교 기관에서 발간된 교재로서 1908년 감리교인쇄소에서 출판된 『간호교과서』가 있다. 이는 1903년 12월에 개교한 보구녀관 감리교 간호원양성학교 및 1906년 9월 쉴즈가 개교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에서 사용할 교재로 출판되었다. 『간호교과서』 역시 한글 전용이었다.

2) 중등 생리위생 교재의 출판

앞에서 다룬 교재들이 의학교와 간호학교에서 사용할 전문적 교재였다면, 그보다 낮은 단계, 즉 중등학교에서 사용할 교재들도 출판되었다. 이들은 주로 ‘위생’이나 ‘생리학’, 혹은 이 둘을 합해 ‘생리위생학’ 등의 제목을 갖고 있었다.¹⁸ 여기서 말하는 생리학은 기초의학의 한 분야로서 인체 각 시스템의 기능을 다루는 좁은 의미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인체에 대한 개괄적 지식과 위생 개념까지를 포함하는 일종의 보건 과목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교재는 대부분 일본 서적을 번역하여 국한문 혼용체로 출판되었다.¹⁹ 일본 서적의 경우 명사를 비롯한 중요한 어휘를 한자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토씨만 국문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방식의 국한문 혼용체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서적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직접 발간했다는 특징이 있다. 보성학원과 휘문의숙은 설립 초기부터 인쇄 출판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어 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용 도서만이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애국계몽 서적들도 많이 출판하였다.²⁰ 특히 보성관은 번역부를 두고 10여 명의 전문 번역원을 동원해 다양한 교재와 서적을 번역하였다.²¹ 번역부가 따로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방식으로 다량의 교재를 출판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위생이나 생리학 외에

도 산술, 물리학, 화학, 동물학, 박물학 등 여러 과목의 중등학교 교재가 번역되어 국한문 혼용체의 형식으로 활발히 출판되었다.

당시 출판된 중학교용 생리학 교재 가운데 특기할 것이 조선야소교서회에서 1908년 발행한 생리학 교과서이다. 저자는 스미스(W. T. Smith)이고, 번역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야소교서회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베어드 부인(Mrs. W. M. Baird)이다. 이 책은 평양숭실학교의 교재로 출판되었다. 국문 제목은 ‘생리학’이지만, 원본의 제목은 ‘인체와 건강’(The Human Body and its Health)으로 당시 ‘생리학’이란 용어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²²

이 책은 앞서 설명한 다른 교재용 서적들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한글 전용이라는 점이다. 다만 중요 용어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표지의 제목도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었는데, 단어 단위가 아니라 『생生理學初初 권』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병기한 점이 특이하다.²³ 한글 전용으로 출판된 제중원 교과서나 간호 교과서는 표지 제목도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다른 국한문 혼용 서적들은 제목을 비롯하여 번역자, 출판사명까지 모두 한자로 되어 있다. 조선야소교서회의 생리학 책이 제목에만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일종의 절충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된 그림에 색이 입혀져 있다는 것이다. 다른 책에도 인체의 그림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단색이다. 그것을 볼 때 조선야소교서회가 『생리학』의 출판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책 말미에 색인이 있는 것도 다른 생리학 교재와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다. 색인어는 ‘영어/한글(한자)/쪽수’와 ‘한글(한자)/영어/쪽수’의 두 종류로 작성되어 이용의 편리를 도모했다. 베어드 부인은

에비슨이 의학 교과서 번역을 위해 만든 용어 목록을 제공해주어 번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에비슨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책의 국문 번역은 일본어 책의 국문 번역에 비해 훨씬 어렵다. 일본어 서적은 기본적으로 한자와 가나가 혼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한문 혼용체로 옮길 경우 한자어는 그대로 두고 토씨만 번역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 서적의 경우 방대한 전문 용어를 옮기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미 이를 한자어로 옮겨두었기 때문에 용어 번역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 없이 연결 성분들만 번역하면 되어 어느 정도 기계적 번역이 가능하다. 보성관이 번역원을 두고 분야에 관계없이 많은 종류의 책을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어와 국한문 혼용체 사이의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그에 비해 영문 서적의 번역은 훨씬 까다롭다. 영어와 한국어라는 완전히 다른 계통의 언어 사이의 번역이라는 점에서 생기는 구문상의 표현 방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많은 의학용어를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의 어려움은 에비슨이 그레이의 해부학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낀 바 있다. 아마도 그런 과정을 거치며 에비슨은 영문-국문 의학용어집을 만들었으며, 이를 베어드 부인이 번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3) 계몽용 서적의 출판

의학교 및 중등학교 교재와 더불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계몽용 서적의 출판도 이루어졌다. 당시는 서양의학이 새롭게 도입되고 그에 입각한 위생 개념의 보급이 시급하던 시기였으므로, 계몽적 성격의 위생 담론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널리 유포되었다. 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한 논설의 형태만이 아니라 별도의 단행본으로

발간된 서적도 있으나 1910년 이전에는 그 출판된 종류가 많지는 않다. 서회에서 발간된 것은 1903년 샤록스(A. M. Sharroks)와 웰즈(J. H. Wells)가 번역한 『서약잡요』, 웰즈가 저술한 『위생』(1907), 샤록스의 『태모위생』(1908) 등이 있다. 이들 계몽서 역시 한글 전용으로 작성되었다. 일부 서적들은 선교 현장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분량이 많지 않은 소책자 형태를 띠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한글 전용이지만 중요한 의학 용어나 과학 용어들은 괄호 안에 한자어와 영문 용어를 병기하여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어 『위생』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샘물. 이 물은 수소와 산소 외에 또 다른 재료들이 있나니 석회질(石灰質)(lime)과 철질(鐵質)(Iron)과 염질(塩質)(Chlorine)과 유황질(硫黃質)(Sulphur)과 다른 여러 가지 질이 있나니라.”²⁴

실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이러한 계몽용 서적의 시초는 1895년 콜레라 대유행 당시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방역 책임을 맡은 에비슨이 콜레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제작·배포한 계몽 포스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²⁵ 에비슨은 콜레라 유행 이후 위생 계몽의 필요성을 절감해 당시의 흔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소책자를 발간하여 선교사들에게 배포했다. 이들 선교사는 각 지역에 전도여행을 다니며 성경사경회를 개최하고, 그 기회에 이러한 책자들로 같이 나누어주었다.²⁶ 에비슨이 밝히고 있는 도서의 목록을 보면 ‘천연두와 접종’, ‘모기와 말라리아’, ‘이와 티푸스’, ‘재귀열’, ‘파리와 장티푸스’, ‘이질, 구충, 인분을 비료로 한 밭에서 생기는 다른 장내기생충’ 등이다. 에비슨이 발간 연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천연두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후 1910년대에 서회에서 발간한 계몽서적과 일치하는 주제여서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일제강점기의 보건·의료 관련 서적의 출판

1910년 이후 관련 서적 출판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교재 출판을 중단된 것이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국문 교재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재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생긴 불가피한 결과였다. 따라서 의학 전 분야의 국문 교과서 발간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제중원 의학 교과서 발간도 1910년 이후 중단되어 의학교육에서 국문 교과서 사용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만 이루어졌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국문 교재 사용은 금지되었지만, 일반 사회에서 국문 서적 발간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보건·의료 관련 서적의 출판은 1910년 이전과는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계몽서적 출판의 비중이 커졌다. 이는 서회의 관련 주제 출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회는 일제강점기 동안 다른 분야의 책들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주제의 책들도 다수 활발하게 출판하였다. 1912, 1914, 1915년에는 의욕적으로 의학 관련 시리즈를 기획하여 발간하기도 하였다. 특히 1912년에는 의학 관련 주제로 10권의 책을 기획하여 출판하였다. 발간된 책은 13-15쪽 분량으로 일상적 상황에서 흔히 제기되는 보건·의료 문제나 콜레라와 같이 당시 크게 문제가 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계몽적 지식을 담고 있다. 이 시리즈의 저자들은 음에 대한 책을 쓴 패터슨(J. B. Patterson)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료선교사들이었다는 게 특징이다. 유일한 한국인 저자로는 홍석후(S. H. Hong)가 있다. 홍석후는 조선 정부에서 만든 의학교를 1905년 졸업한 후, 잠시 개업을 하다가 부족함을 느껴 세브란스의학교에 편입하여 1908년 제1회 졸업생이 되었으며, 이후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가르쳤다. 홍석후는 에비슨과 함께 국문 의학 교과서 편찬에도 참여하여 『신편생

리교과서』, 『진단학1』, 『진단학2』, 『서약편방』 등 여러 권의 의학 교과서를 번역한 경험이 있었다.

이처럼 1912년부터 서회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소책자들이 활발하게 간행된 것은 1912년 9월에 열린 한국의료선교사협회의 연례회의의 결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의학교육위원회, 간호교육위원회, 의학용어위원회, 연구위원회 등과 함께 출판위원회(Committee for Tracts)를 두기로 결정했다.²⁷ 그리고 여기서 발간되는 책자는 일차적으로 선교와 기독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용도로 제작되었다.

당시 한국의료선교사협회의 회장은 반 버스커크(J. D. Van Buskirk, 1881-1969)였다. 그는 1908년 미국 북감리교 파송으로 한국에 왔고, 세브란스의학교가 교파 연합이 되면서 북감리교 대표로 1913년 세브란스에 파견되어 1933년 건강 악화로 귀국할 때까지 세브란스에서 근무했다. 반 버스커크는 세브란스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한편 의학 지식의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어가 유창했던 그는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건강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했고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 매체에 위생 관련 연재물을 실는 등 의학 지식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섰다. 또 한국의료선교사협회 회장으로 있던 당시 본인이 출선하여 『영아양육론』과 같은 계몽서적을 펴냈고 이후에도 몇 권의 서적을 서회에서 더 출판했다.

반 버스커크가 출간한 의학 계몽서적은 서회에서 출간된 다른 보건·의료 관련 서적들에 비교해 특징적인 면들이 있다. 첫 번째는 분량이다. 서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의학 관련 서적들은 소책자로 10여 쪽 전후였다. 반면 반 버스커크의 책들은 100쪽, 200쪽을 넘는다. 1912년에 처음 발간한 『영아양육론』의 경우 13쪽이었으나,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1926년에는 34쪽의 『영아양육』을 펴냈다. 같은 해에 나온 『科學과 宗教』

는 113쪽이었고, 1938년에 나온 『건강생활』은 216쪽 등으로 상당한 분량이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국한문 혼용으로 발간된 점이다.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발간한 선교용 서적들은 언어적 측면에서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 먼저 초기인 1890년대에는 한학에 익숙한 식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국의 개신교 신자 사이에서 널리 읽힌 한문본 책을 수입하여 배포했고, 대중을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하여 배포했다. 그러다가 점차 한문본은 자취를 감추고 대체로 한글 서적만을 발간하게 되었다.²⁸

그러나 한글본은 대중들에게는 괜찮지만, 식자층에게 다가가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느끼고 국한문 혼용체로 기독교 서적을 발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문서를 통한 선교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언더우드가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게일과 함께 국한문 혼용체 신약성서의 출판을 지지했고, 간단한 소책자라 하더라도 식자층을 위해서는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국한문 혼용체로 된 서적을 준비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자신은 교육을 많이 받은 한국인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책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대단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²⁹

이러한 필요성의 대두로 인해 1920년대 이후에는 국한문 혼용체로 출간되는 책들이 늘어난다. 이는 특히 10쪽 전후의 소책자가 아니라 100쪽 이상의 단행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 버스커크의 저서들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 버스커크는 1913년 ‘여자 기독교 절제회’(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에서 『신체삼해론』을 출간하였다. 이 단체는 금주를 비롯한 절제운동의 핵심적 주체였고, 반 버스커크 역시 금주운동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출간한 책은 순

한글이었다. 그런데 그는 동일한 책을 1921년 서회에서 국한문 혼용체로 출간하였다. 책 제목도 한문 『身體三害論』으로 바뀐다. 반 버스커크는 서론에서 기존에 한글본이 있지만, 청년지식 계급에 더 접근하기 위해 국한문 혼용체로 재발간함을 밝히고 있다.³⁰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해악은 술, 담배, 성으로 주로 남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당시 조선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남성 지식인들에게 절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언어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반 버스커크는 『科學과 宗教』(1926), 『健康生活』(박문서관, 1929; 조선예수교서회, 1938) 등을 모두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하였다.

그중에서 『健康生活』은 1929년 일반 출판사인 박문서관에서 먼저 나왔다가 후에 조선예수교서회에서 개정판이 나온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은 200쪽이 넘는 적지 않은 분량의 책이었다. 대개 이 정도 분량의 책들은 기존 서적의 번역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책은 반 버스커크가 직접 저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박문서관 판에 김명선이 번역자로 나오지만, 이는 다른 책들처럼 이미 발간된 서적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책의 기획 단계에서 반 버스커크가 쓴 내용을 김명선이 번역하여 그 원고를 출판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번역서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또 반 버스커크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단순히 번역이나 번안 도서가 아니라 조선인이 당면한 위생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실제로 그는 한국인의 식이(食餌, diet)에 대한 연구를 했을 뿐 아니라 위생계몽 강연과 기고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 책은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나온 만큼 이 책에 대한 자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처음부터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되었

다. 처음에는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으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나중에 서회에서 발간되었을 때에도 국한문 혼용체를 유지했다. 다만 박문서관 발행본은 일반 국한문 혼용체 서적과 마찬가지로 한자어 사용이 상당히 많지만, 서회에서 발간한 것은 비록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문장은 한글로 되어 있고 한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즉 서회에서 발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서회에서 발간한 보건·의료 관련 국한문 혼용체 서적을 살펴보면 책에 따라 한자 사용의 정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언급했듯 『健康生活』이 한자를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한 것에 비해 『간호교과서』(1918)는 토씨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한자로 되어 있다. 이는 『간호교과서』가 일본 적십자사에서 발간한 간호학 교과서를 번역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서회 발간 보건·의료 관련 서적은 한자 사용을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한자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완전한 한글 전용이다. 이는 『위생』(1907)이나 『태모위생』(1908)과 같이 1910년 이전에 발간된 소책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다음으로는 한글 전용이되 소수의 단어에 대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이다. 이는 『생리학 초권』이나 김필레의 『성교육』 등에 해당한다. 국한문 혼용체는 한자 사용 빈도에 따라 한자 노출이 제한적인 책과 빈번한 책으로 구별되고, 드문 경우지만 『청년의 생식기위생』(1926)과 같이 본문은 한자 사용이 많은 국한문 혼용체이지만 한자 단어 옆에 작은 한글로 음을 단 책도 있다.

서회에서 국한문 혼용체 서적도 발간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글 사용의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7일안식일재림교회에

서 만든 출판사인 시조사가 발간한 보건·의료 관련 서적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제7일안식일재림교회는 1909년 순안병원을 열고 의료선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선교에서 의료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순안병원의 원장 러셀이 재림교회의 한국선교 책임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³¹ 재림교회는 병원 설립과 더불어 출판사인 시조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적을 출판했다. 시조사는 종교적인 서적들과 더불어 보건위생 관련 서적도 다수 발간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1924년에 발간된 『延年益壽』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가장 대표적인 건강 계몽서적으로, 판을 거듭하며 널리 읽혔다.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된 이 책의 언어적 특징은 한글은 거의 토씨로만 사용되고 대부분의 주요 문장 성분들은 한자로 되어 있는 점이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발간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발간물의 언어적 특징은 상당히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시조사에서 이 책 이외에도 적지 않은 건강계몽 서적을 발간했는데, 모두 국한문 혼용체였다.

서회나 시조사와 같은 종교 출판사에서 발간한 의학 계몽서적들은 순수하게 보건위생 지식의 전파라는 계몽적 목적도 있으나, 반 버스커크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금주, 금연 등과 같이 절제운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크다. 이러한 측면은 재림교회의 의학 계몽서적 발간에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시조사에서 발간하던 잡지인 「시조」와 「교회지남」이 일제 말기 폐간당하자 대신 「건강생활」이라는 잡지를 새로 발간한 사실도 건강 문제에 대한 종교적 관심사가 컸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결론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이래 문서 출판사업은 선교의 중요한 방편이었고,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조선기독교서회였다. 문서 출판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교육이나 의료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적지 않은 교육용 교재나 보건·의료 관련 서적이 사회에서 출판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190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사회에서 발간된 보건·의료 관련 서적은 현재 확인된 것만 30종이 넘는다. 그중 다수가 팸플릿 형태로 일차적으로는 전도 현장에서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콜레라, 나병, 기생충병 등 대개 특정한 질병이나 영아, 산모, 청년의 위생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주의사항을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밖에 양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간호학 교과서와 같은 교재도 있었고, 술, 담배, 아편 등을 금하는 절제운동의 맥락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계몽서적도 있었다.

사회에서 발간된 보건·의료 관련 서적의 중요한 특징은 필자가 대부분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의료선교사들이었고 일부 한국인도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다른 출판사에서 간행된 같은 주제의 서적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구미 서적의 번역물이었던 것과 크게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는 사회에서 발간된 보건·의료 관련 서적들이 단순히 일반적 의미의 계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시급했던 질병이나 주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음을 말해준다.

사회 출판물의 언어적 특징은 대부분의 서적이 한글 전용이라는 점이다. 이는 초창기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기독교 출판물이 한글 전용으로 이루어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현장에서 긴요한 위생 지식을 대

중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책자들의 경우, 특히 1910년 이전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했고 또 충분한 명분도 있었다.

그러나 한글 전용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었다. 선교사 내부에서도 언더우드와 같이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을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반 버스커크는 서회에서 국한문 혼용체로 『健康生活』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서회에서 출판된 보건·의료 관련 서적들은 초창기인 1910년대 전후로는 한글 전용의 경향이 강했고, 1920-30년대가 되며 국한문 혼용체 서적의 발간도 늘어났다. 이는 서회가 한글 전용이나 국한문 혼용과 같은 특정한 언어적 원칙에 집착하기보다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신자에 대한 고려, 다시 말해 당시 활자를 소비하는 주류 독자층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상**

[표 2] 조선야소교서회 발간 의료 관련 서적 목록

제목	저자	연도
위생(Introduction to Hygiene)	J. H. Wells	1907
생리학(초권)(The Human Body and its Health)	W. T. Smith / Annie L. Baird	1908
태모위생(Hygiene of Parturition)	Alfred L. Sharrrocks	1908
상처치료법(Wounds and how to treat them)	R. G. Mills	1911 이전
회충을 삼갈 것(Intestinal and other Parasites)	E. E. Weir	1911 이전
해소병다스리는법(Consumption, its prevention and Cure)	A. H. Norton	1911 이전
괴질예방법(Cholera)	S. H. Hong	1912
파리와병의 관계론(Flies and Disease)	R. G. Mills	1912
성사하는 여자론(Successful Woman)	E. L. Shields	1912
옴종나는 이유를 설명함(Itch and its Cause)	J. B. Patterson	1912
아편은 사약이라(Opium)	W. T. Reid	1912
속병다스리는법(內病治療法)	R. G. Mills	1912

문둥병을 예방할 것(Prevention of Leprosy)	R. M. Wilson	1913-14
영아양육론(The Care of Infants)	J. D. VanBuskirk	1912
화류병예방(성병)급치료(Venerel Disease)	Dr. Wilson	1913-14
회를 삼갈 것(기생충)(Parasites)	Dr. Weir	1913-14
말라리아 예방법(Prevention of Malaria)	미상	1914
身體三害論	J. D. VanBuskirk	1914
열병든아희치료법(Fevers in Children)	H. H. Weir	1914-15
임산부위생(Hygiene of Pregnancy)	미상	1914-15
재귀열병진염예방(Relapsing Fever)	미상	1914-15
가정위생(Domestic Hygiene)	미상	1918-19
간호교과서(Textbook on Nursing)	홍현설	1918
청년의생식기위생(Sexual Hygiene for young man)	W. T. Belfield	1926
나병홍보팸플렛(Leprosy)	미상	1922-23
여자육체변화괴론(Advice to young girls)	E. T. Rogenberger	1924-25
처녀의 비밀론(From Girlhood to Womanhood)	Emma Lieber	1924-25
건강홍보팸플렛(Treatment of Leprosy)	미상	1925-26
감기(Colds)	Mrs. Cardwell	1926-27
폐결핵치료의비결(Tuberculosis)	A. G. Fletcher	1927-28
간이위생(Hygiene in the Home)	E. J. Shepping	1928-29
아동위생(Hygiene for Children)	Miss E. F. Gaylord	1928-29
영양과건강(Child Nutrition and Health)	Miss Frances Lee	1932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미상	1934-35
健康生活	반복기/김명선	1938

주(註)

- 1 『舊韓國外交文書』 卷10(美案1), p.113, 「安連의 病院建設案」. 규18046의 1, 1885년 1월 27일.
- 2 H. N. 알렌, 김원모 옮김, 『알렌의 일기』(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49.(1885년 1월 22일)
- 3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August, 1909.

- 4 “제중원일차년도보고서”, 여인석 옮김·해제, 『알렌의 의료보고서』(역사공간, 2016), 15.
- 5 George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1892), 296-297.
- 6 D. L. Gifford, “Education in the capital of Korea. II,” *Korea Repository* 3 (1896), 214.
- 7 박형우, 『제중원: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21세기북스, 2010), 175-179.
- 8 빈튼은 제중원 운영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문서를 통한 선교활동에 적극적이었다.
- 9 박형우, 앞의 책, 223-224.
- 10 박형우, 앞의 책, 234-244.
- 11 “에비슨 박사 소견”, 『기독신보』 제867호(1932년 7월 13일).
- 12 올리버 R. 에비슨, 박형우 옮김,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상)』(청년의사, 2010), 313.
- 13 박형우,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 서적”, 『의사학』 7/2(1998): 234.
- 14 今田東, 『實用解剖學』(發兌書林, 1927; 초판1887).
- 15 今田東 저, 김필순 역, 『해부학(권1)』(제중원, 1906), 1.
- 16 今田東 저, 유병필 역, 『解剖學』(度支部 印刷局, 1907), 1.
- 17 제중원 번역본의 서지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고은숙,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해부학』(1906)의 서지와 번역 특성 고찰”, 『연세의사학』 21/2(2018): 101-125. 그리고 제중원 의학 교과서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다루었다. 여인석, “제중원 의학 교과서의 의학적 의미”, 『동아시아 해부학 전통과 제중원 해부학 교과서』(역사공간, 2021), 241-264.
- 18 이러한 종류의 교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출판되었다. 善成館 繙譯部 譯述, 『中等生理學』(善成館, 1908); 任璟宰 譯, 『中等 生理衛生學』(徽文館, 1908); 譯述者 安種和, 『初等衛生學教科書』(廣學書舖, 1909).
- 19 보성관의 『중등생리학』은 다음 책을 번역한 것이다. 丘淺次郎, 『中等生理教科書(修正改版)』(六盟館, 1902). 휘문관의 『중등생리위생학』은 다음 책을 번역한 것이다. 齋田功太郎, 『中等教育生理衛生學』(敬業社, 1897).
- 20 박준형·박형우, “홍석후의 『신편생리학』 번역과 그 의미”, 『의사학』 21/3(2012): 503.
- 21 권두연, “보성관(善成館)의 출판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4(2011): 26-36.
- 22 William T. Smith, *The Human Body and its Health* (American Book Company, 1884).

- ²³ 1921년 재판에는 초판과는 달리 글자 단위가 아니라 전체 제목 단위로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 ²⁴ 웰즈, 『위생』(대한예수교서회, 1907), 9.
- ²⁵ O. R. Avison, “Some High Spots in Medical Mission Work in Korea,” *KMF* 35-4 (1939. 6): 73.
- ²⁶ O. R. Avison, 위의 글, 122.
- ²⁷ Hugh N. Weir, “Korea Missionary Association,” *KMF* (1913. 1): 13.
- ²⁸ 김성연, “식민지 시기 기독교와 의학지식 형성”,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제중원 130주년과 근대의학』(역사공간, 2016), 234.
- ²⁹ 이만열·옥성득 편역, “개인연례보고서 1915”, 『언더우드자료집』(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220-221.
- ³⁰ 김성연, 앞의 책, 233.
- ³¹ 이국헌, “한국 근현대사에서 재림교회 선교병원의 역할과 의의”,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동아시아 역사 속의 선교병원』(역사공간, 2015), 161-162.

어인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교수이다. 저서로 『의학사상사』, 『제중원 뿌리논쟁』(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히포크라테스 선집』 등이 있다.